華南 東晋墓出土의 銅帶銙飾

金 元 龍

考古學報(一九五七年四期)에 依하면 一九五六年 江蘇省 宜興에 있는 一東晋時代古墓에서 靑銅製 帶銙 數片이 發見되었는데 그 形式은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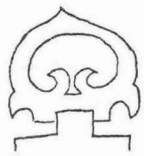


그리고 이밖에 方形銙에 方形垂飾을 매단 것도 數例 있는데 녹이 甚해서 文樣을 仔細하게 알아 볼 수 없으나 所謂 怪雲文系統임은 分明하다。

그런데 圖示한 銙飾은 百濟에서는 꼭 같은 것이 公州 宋山第一號墳에서 銀으로 단든 것이 二箇 發見되었고 또 新羅에서는 純金製가 하나씩 全部 나오고 있다。

이 三者가 各各 材料는 다르나 形態가 꼭 같은데 東晋 것은 西紀四世紀、百濟、新羅 것은 빨라서 五世紀後半葉 늦어서 六世紀前半葉에 該當되는 것이다。

그런데 大部分의 古新羅古墳에서 나오는 帶銙는 前記 形式을 더 簡化한 圖示한 바와 같으며 形式上으로는 前者로부터의 簡化 또는 後來의 것임이 分明하다。



이러한 簡化는 百濟에서 일어난 것인지 또는 新羅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至今 갑자기 알 수 없으나 何如튼 帶銙가 華南에서 百濟로 들어와 百濟에서 다시 新羅로 들어온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渡來의 時期가 問題가 되는데 百濟에서는 四世紀後半葉에 使節을 東晋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 때부터 그런 中國의 服飾이 들어 왔을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宋山里第一號墳의 銀製帶銙를 四世紀까지 올릴 수는 到底히 없다。 亦是 南韓에서 古墳文化가 자리를 잡고 發展하는 것은 五世紀、六世紀라고 보아야 한다。

古新羅時代의 工藝가 大端한 發達을 본 것은 事實이고 또 百濟의 遺物이 남아 있는 것이 적어 新羅가 언제나 하이라이트를 받지만 百濟로부터 건너가는 影響이 看過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百濟美術에 對해서 直接的인 影響을 준 大陸의 存在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要컨대 누가 먼저니 나중이니 따지는 것보다 古代에 있어서는 地域을 超越한 汎極東樣式이라 할까 하나의 共通된 基本的 樣式이 存在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現實的인 것이다。

百濟 石製小像 斷片 (其二)

黃 壽 永

(2) 滑石如來立像片…高 九㎝ 幅 八㎝ 厚 三㎝에 不過한 小片으로서 一九五九年 三月 二五日 扶餘邑 舊校里 鄕校발寺址(朴永培氏 家屋 東北方)에서 洪再善君에 의하여 拾得된 것이다。 오랫동안 土中되었던 때문에 石面은 浸蝕되어 小孔이 全面을 덮고 있으나 刀痕은 分明히 남아 있다。 이

